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사업」

심사평

일시 | 2025년 05월 21일 수요일

장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B동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 구분 | 심사평 |
|----|--|
| B | 부여박물관이 갖는 공간적 속성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공간의 밀도, 고저차, 명암을 이용한 내브공간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해석과 현황분석이 다소 추상적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적 제안(구조, 설비부분)이 갖는 한계가 아쉬운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
| C | 내부공간의 적극적 재배치를 통한 공간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별도 Core를 동선처리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원 부여박물관이 갖는 공간적 원형과 특성을 훼손하고 있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
| D | 구 부여박물관이 갖는 공간적 특성과 김수근 건축이 갖는 설계수법 재현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몰입형 전시공간으로 이어지는 전시동선의 공간적 연계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구조적 보강과 박물관의 기술적 해결이 적극적인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몰입형 전시로 이어지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F | 시간의 흔적을 담은 풍경으로서의 건축을 지붕녹화를 제안하고 있는 계획안으로 백제역사문화의 배경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계획안이지만, 몰입형 전시공간과 개방형 수장고와 지형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우려되는 계획안으로 생각합니다. |
| G | 지하공간을 활용한 몰입형 전시공간이 갖는 열악한 환경을 2층으로 이동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구 부여박물관이 갖는 원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하며 전시계획으로 연결하고 있는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조 및 설비 등 지원공간의 구성이 다소 부족한 점이 아쉬운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사업」

심 사 평

일시 | 2025년 05월 21일 수요일

장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B동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 구 분 | 심 사 평 |
|-----|---|
| 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의 흐름에 대응, 역사적 가치 분석 및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건축가의 해석 등이 잘 표현된 작품으로 판단됨 - 여러 번 찾게 하여 전체적인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계획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좋음 - 지하 몰입형 전시실로의 동선이 본동 전시실과의 연결성이 부족하고, 이용 동선이 다소 불편함 - 과업의 범위인 리모델링, 구조 성능 보강(내진 보강 포함)에 관한 내용이 부족함 |
| 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를 연결하는 중성적 공간인 회랑을 계획하여 전통의 창조적 해석이 돋보였고, 독립형 코어를 계획하여 전 층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함 - 회랑공간 조성으로 인한 면적 확보가 어려워 2층 공간 일부를 슬래브로 막아 계획함에 따라 당초에 있었던 대공간의 개방감이 없어짐 - 기존 지하 격납고를 카페로 계획한 것은 개방감과 외부로의 조망이 요구되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간의 활용 면에서 불리함 |
| 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의 버려져 있던 공간에 새롭게 기능을 부여하여 몰입형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그 공간에 접근하는 멀티미디어월을 조성하여 전시 공간의 극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계획임 - 수장 공간을 별동으로 계획하여 본동 내 공간의 융통성과 확장성이 좋음 - 관람객의 전시 동선이 위계에 따라 계획되어 전체적인 공간 구성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임 - 일부 실로 직접 연결되는 승강기 계획을 공용 공간을 통해서 해당 실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 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경으로서의 관계 맺기를 개념으로 주변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계획내용이 우수함 - 지붕녹화는 건물 자체가 오브제이고 역사적인 풍경임을 감안할 때 원형의 훼손이 다소 우려됨 - 서측 부분을 절토하여 적극적인 지하층으로의 접근을 계획하였는데, 그에 반해 해결할 수 있는 기능과 효과는 다소 미약함 - 수직 동선(승강기)의 계획이 전체 건물을 위한 수직 동선으로 기능하기에는 미흡함 |
| 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체적 공간 체험을 위한 1층과 2층의 상설 전시영역에 대한 계획이 우수함 - 지하 격납고에 계획된 기획전시실은 다양한 기획전시를 연출하기에는 공간의 제약이 우려됨 -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연결부에 계획된 매개 공간이 연결통로의 역할이 강하여, 공간적 또는 심리적 상태의 완충지역으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

심사위원 : 박 상 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사업」

심사평

일시 | 2025년 05월 21일 수요일

장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B동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 구분 | 심사평 |
|----|---|
| B | 기존 건축물의 건축적 특징을 회복시키고, 필요로 하는 기능을 기존 공간 질서와 구분되는 형태 언어로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공간과 새로운 형태간에 조화와 대비가 이루어 짐. 다만, 좁고 긴 지하공간 진출입공간과 상대적으로 협소한 물입형 전시실에 대한 현실 가능성에 의문이 있음. |
| C | 실내공간과 외부공간 사이에 '회랑공간'을 배치하여 건축물의 입구공간 및 사람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계획하였고, 주변의 역사문화 공간과 잘 연계되어 있음.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수직동선의 신설을 통해 지하부터 최상층까지 교통약자를 위해 잘 배려되어 있으나 관람자 동선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됨. |
| D | 계단 형식을 원상태로 복원하는 등 기존 건축물의 공간감을 회복하고, 지하 공간과의 적극적 연계가 우수함. 상대적으로 기존 건축물 지하부분에 대한 개입이 많으므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심도적인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 F | 기존 건축물의 건축적 특징을 존중하여 실내공간을 구성하였고, 선큰문화광장을 계획하여 대지 외부공간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냄, 다만, 이로 인해 주출입구로의 접근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 G | 기획전시실을 지하공간에 배치하고, 지상의 상설전시실과의 연결동선 사이에 카페를 배치하여 지하공간과 지상 공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였음. 다만, 최상층까지 엘리베이터의 연결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 |

심사위원 : 석정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사업」

심사평

일시 | 2025년 05월 21일 수요일

장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B동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 구 분 | 심 사 평 |
|-----|--|
| B | 원 건축물의 공간에서부터 건축요소 하나하나까지 일관된 태도로 섬세하게 분석하여 재해석한 안이다. 건축물 자체를 관람의 요소로 바라보도록 의도해준 훌륭한 제안이다. 발표 중에 언급된 '체류시간'에 대한 건축가의 해석과 제언 또한 두고두고 생각해볼 내용이다. 건축가의 작품에 대한 '태도'는 늘 중요한 테마이겠지만, 기존 건축물을 다루는 리모델링 프로젝트에서 건축가의 입장 표명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안이었다. 실현되지 못할 제안으로 남아 무척 아쉽다. |
| C | 셋백된 회랑과 투명한 수직동선을 도입하며 건축가의 분명한 의도로 접근한 안이다. 특히 '처마' 역할을 하게 되는 회랑의 제안은 다른 제안작들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재해석이었다. 그 과정에서 건축물의 원형에 비해 좁게 느껴지는 내부공간이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랑의 도입을 통한 동선의 해석 및 복원과 수직 코어를 통한 해결은 여전히 뛰어난 해결책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철골 구조체를 내부에 삽입하는 제안은 합리적이면서도 기술과 건축 제안을 하나로 묶어내는 강한 제스처였다. |
| D | 건축물의 원형에 대한 고민, '복원'에 대한 관점의 해석, 주변 맥락에 대한 발전적 해석 등, 공모의 취지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본에서부터 접근하여 해석하고 제안하려는 태도가 돋보인다. 지하 격납고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 수장고를 부속동으로 빼면서 확보한 여유로운 전시공간 등도 지침서의 취지와 발주처의 사용 측면을 잘 고려한 제안으로 보이고, 그 점에서 만든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주변 맥락에서부터 건축공간, 구조와 리모델링 기법, 설비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스케일에서의 섬세한 제안도 돋보인다. |
| F | 지침의 원하는 지점, 그리고 원 건축물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에 충실하게 진행된 계획안으로 보인다. 주변 경관과의 경계를 흐리기 위해 제안한 지붕 녹화 부분은 건축가의 취지는 이해했으나, 기술적 측면, 본 건축물의 원형에 대한 관점 등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
| G | 기획전시실을 기존 격납고로 옮기고 물입형 전시실을 2층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공간활용 제안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기획전시실은 건축기획단계보다 풍부해지고 활용도도 높아졌다. 또한, 이 제안을 이루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 및 부가되는 건축제안들도 섬세하고 성실하게 제시되었다.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된 제안이다. |

심사위원 : 신현보 (신현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사업」

심사평

일시 | 2025년 05월 21일 수요일

장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B동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 구분 | 심사평 |
|----|---|
| B | 구 부여박물관 프로젝트를 접하는데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 고민이 작품에 잘 녹여져 있는 훌륭한 안입니다. 또한, 구부여박물관 볼륨과 매표소 볼륨과의 관계도 잘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입형 전시관으로의 진입동선계획이 다소 아쉽습니다. |
| C | 독립된 코어를 신설함으로써 각 층으로의 동선연결이 잘 이루어진 안입니다. 전이공간적 성격의 회랑공간을 구성함으로써, 다채로운 공간구성이 잘 계획하였다고 생각됩니다. |
| D | 구 부여박물관에 대한 분석이 훌륭합니다. 이 건축물에서 지켜야 할 부분들은 최소한의 제스처들을 취함으로써 잘 지켜내고, 전시동선 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간을 재해석하여 작품에 잘 담아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후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공사상 어려움들을 잘 풀어 훌륭한 작품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
| F | 부소산과 조화를 위하여 지붕을 녹화하고, 문화광장을 구성하여 몰입형 전시관으로의 접근을 개선하고 세계유산 지구와의 연계를 고려한 점이 참신한 안입니다. 전시동선간의 연계가 다소 아쉽습니다. |
| G | 상설전시 몰입형 전시 기획전시 뮤지엄샵으로 이어지는 전시동선의 연계가 입체적으로 잘 계획된 안입니다. 그러나, 박물관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고려되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